

지역 소식통

청하초등학교 학생들  
이웃돕기 성금 기탁

김제시 청하면 행정복지센터는 4일 청하초등학교(교장 오선화) 학생들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이웃돕기 성금 22만8,000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된 성금은 청하초등학교 학생들이 지난해 12월 28일 플라마켓 행사와 계란 판매를 통해 얻은 수익금으로 전북 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청하초등학교 오선화 교장은 "학생들이 플라마켓에 참여한 수익금으로 가치있는 일을 할 수 있게 되어 기쁘고, 아이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마련한 성금이 지역사회 그늘진 곳에 따뜻한 햇살이 되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2023 정보공개  
종합평가 '최우수 기관'

완주군이 2023년 정보공개 종합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최우수 선정은 3년 만의 등급 탈환이다. 완주군은 2018년부터 6년 연속 '우수' 이상의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4일 완주군은 행정안전부가 전국 591개 지자체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2023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평가는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9년에 2018년 분 평가부터 시작했다.

완주군은 2018년분(최우수), 2019년분(우수), 2020년분(최우수), 2021년분(우수), 2022년분(우수)에 이어 2023년분(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완주군은 사전정보, 원문공개, 청구처리, 고관관리 4개 분야의 평가항목에서 모두 우수한 점수를 거둬 군 단위 평균보다 11.85점이 높았으며 지난해보다 6.56점이 상승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이번 평가는 군민의 알권리와 행정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반응이다"며 "앞으로도 군민 모두의 행복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완주=염재복 기자

# 완주군 방문객 2천만 명 돌파

### 한국관광 데이터랩 분석... 전북 평균 1.4% 대비 완주는 8% 증가

완주군 방문객이 2,000만 명을 넘어섰다. 전북지역 최고의 증가율이다.

4일 완주군은 한국관광공사의 한국관광 데이터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완주군 방문객은 2,079만4,604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년 대비 전북 평균 방문객 증가율은 평균 1.4%에 그쳤지만 완주군은 8%로 최고 증가율을 보였다.

한국관광 데이터랩은 통신문, 카드사, 내비게이션 데이터를 토대로 방문객을 분석하고 있다.

특히, 한국관광 데이터랩에서 활용하고 있는 방문지는 거주, 통근, 통학 등 일상생활권을 벗어나 관광 등의 목적으로 머무른 사람을 통계로 잡고 있다. 상주인구, 지역을 통과하는 인구,

방문횟수가 많은 방문자를 제외하며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있다.

이번 통계에서 완주군의 인기 관광지는 대둔산, 고산자연휴양림, 모악산, 송광사·오성마을, 삼례문화예술촌 순으로 나타났다.

1위를 차지한 대둔산은 완주군이 13년 만에 '대둔산축제'를 부활시켜 성공적으로 치러졌으며, 통계 이후인 12월에는 꽃감축제를 여는 등 연중 관광객을 유입하고 있다.

이외에도 테마형 관광열차 유치, 삼례예술촌 주차장 확보, 우석대 완주 문화역사전망대 준공, 축제 활성화, 교통 개선, 스포츠 마케팅 등의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며 방문객 유입을 견인하고 있다.

한국관광 데이터랩 통계 이외에도 완주군은 외국인 유입에서도 유의미한 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해말 카카오톡발리티 '카카오' 애플리케이션에서 발표한 외국인 택시 호출 이용량에서도 BTS 화보집 촬영지인 소양오성한옥마을(아원고택)이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완주군에 2,000만 명이 다녀가고, 외국인들의 관심도 이어진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며 "완주관광체육마케팅 센터를 중심으로 관련 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스포츠 산업 육성, 교통 인프라 확충 등을 전략적으로 추진해 3,000만 방문객 시대를 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완주=염재복 기자



4일 완주군은 고산북부권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인 시민여객의 노선권 매입을 완료했다.

## 완주군, 완전 공영제 시내버스 준비 '착착'

### 고산북부권 시내버스 노선권 매입 완료... 운행요금도 내려

완주군의 시내버스 완전 공영제가 가시화되고 있다.

시내버스 완전 공영제는 각 지자체에서 도입을 고민하고 있지만 막대한 예산이 필요해 쉽게 도입 결정이 어려운 사업이다. 노선권을 확보하는 것도 과제다.

완주군 또한 노선권 매입과 관련해 운수업체 협의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완주군의 적극적인 노력과 설득으로 협약을 성사시켰다.

4일 완주군은 고산북부권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인 시민여객의 노선권 매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고산북부권 노선을 담

당하고 있는 주식회사 시민여객자동차와 노선권 매입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최근 계약 및 대금 지급까지 마무리했다.

다만, 완주군에서 공영마을버스 운영을 위한 사전 준비절차를 마치기 전까지 당분간은 시민여객에서 기존처럼 운행한다.

고산북부권은 고산면, 비봉면, 운주면, 화산, 동상면, 경천면 6개면이다.

고산북부권 공영제가 시행되면 앞서 시행된 완주-전주 기간선제 3단계 실시와 함께 완주군 13개 읍면 전역의 완전 공영제가 이뤄지게 된다.

운행요금도 기존 1,500원에서 500원

으로 내려가게 되고, 안정적인 노선 운행, 차량 노후화로 인한 불편도 사라지게 된다.

또한, 완주군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주민중심의 노선개편을 추진해 대중교통 불편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시내버스 공영제와 관련해 많은 우려의 시선도 있지만 주민 행복을 위해 교통복지 실현은 반드시 해야 하는 숙원이라 생각한다"며 "향후 시행될 완주-전주 기간선제 3단계 추진과 더불어 고산북부권 공영마을버스 시행이 완주군민 대중교통 편의증진에 큰 변곡점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완주군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운영위원회 '아띠'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생강골 포도송이'가 서울 소재 놀이공원을 다녀왔다.

## 완주 청소년 문화의집, '겨울 추억 만들기'

### 놀이공원 방문, 청소년들이 프로그램 직접 기획

완주군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운영위원회 '아띠'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생강골 포도송이'가 한 해 동안의 활동을 마무리하기 위한 특별체험활동으로 서울 소재 놀이공원을 다녀왔다.

4일 완주군에 따르면 이번 특별체험활동은 청소년들이 프로그램 내용을 직접 기획하고 구성했다.

청소년들은 다양한 팀별 미션활동을

진행해 협동심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공연과 퍼레이드 관람을 통해 문화, 예술적 역량을 길렀다.

특별활동에 참여한 김모 청소년은 "놀이기구만 타지 않고 다양한 팀 미션을 수행하면서 친구들의 모던 모습을 많이 알게 됐다"며 "협동심과 우정을 더욱 돈독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돼 행복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 "복지 사각지대 농민 분들에게 도움 되고요"

### 검산동 김제예수사랑교회, 소외계층 위한 기부금 전달

김제시 검산동 행정복지센터는 김제예수사랑교회가 지난 3일 지역사회 저소득계층을 위해 성금 1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김제예수사랑교회는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 실천과 지역청년들의 자립을 위해 헌신하고 있으며, 이번 기부금은 교인들의 마음을 모아 소외계층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마련했다.

최정호 목사는 "지역 내 복지 사각

지대에 놓인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 기부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어려운 저소득층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겠다"고 말했다.

송영에 검산동장은 "소외된 이웃을 위해 사랑나눔을 실천해주신 김제예수사랑교회에 감사드린다"며, "지역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봉사 프로그램을 진행해 사각지대없는 검산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 완주군 청소년 문화의집, 전북 유일 '최우수기관' 선정

완주군청소년문화의집이 여성가족부에서 진행한 2023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에서 전국 517개소 청소년수련시설 중 상위 10%안에 들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4일 완주군에 따르면 최근 완주군청소년문화의집은 전북 34개소 청소년수련시설 중 유일하게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9조의 2에 따라 2년 주기로 전국 청

소년수련시설을 대상으로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운영 및 관리, 청소년 이용 및 참여,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시설 안전, 시설 운영 등 7개의 분야와 7개의 안전 점검 분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완주군청소년문화의집은 전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청소년들의 안전하고 유익한 활동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돋보인다고 평가받았다. /완주=염재복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